

선학원 관련 示衆

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입니다. 선학원 구성원은 조계종의 宗徒입니다. 선학원을 설립한 만공스님, 용성스님, 석우스님, 적음스님 등은 모두 한국불교의 禪脈을 이어 온 스승들입니다. 선학원이 종단 사찰과 큰스님들의 재산 출연을 통해 설립된 법인임을 모든 중도들은 깊이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.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을 해하는 言行이 있을 때는 중정을 비롯하여 모든 중도들의 강한 指彈이 있을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.

승가는 화합이 第一입니다. 종단 집행부와 선학원 이사회는 사회법에 의한 爭訟 등 破승가적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조속히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佛祖의 慧命에 어긋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.

현재는 선학원 소속 사찰과 본원장들이 조계종도로서 權利와 義務를 다할 수 없습니다. 선학원 이사회는 본원장들의 이 같은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, 종단 집행부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.

불기2557(2013)년 4월 2일

대한불교조계종 중정 진제 법원